

장애 및 장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탐색*

위선영 (미르유치원, 교사)

백은희* (공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장애 및 장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대상자별 특성, 중재전략 및 중재전략 효과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따라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총 17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은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대상자별 특성, 중재 대상에 따른 행동특성, 중재전략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중재 전략의 효과크기는 PND 값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중재 대상 중 자폐성 장애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연령의 경우 만 5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중재 환경은 유치원에서 실시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둘째, 중재 대상에 따른 행동유형의 경우 문제 행동 PND 범위는 70~100%의 중간 정도 범위의 효과가 나타났고, 적응 행동 PND 범위는 100%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재 전략은 분석한 논문 17편에서 배경 및 선행사건 전략, 대체행동 교수전략, 후속결과 전략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중재를 실행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장애유아, 장애위험 유아, 문제 행동

* 이 연구는 제1저자의 2020년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ehpaik@kongj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의 함축성은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줌으로써 모든 유아가 동등한 선택의 자유와 소속감을 지니고 유치원 등에서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소현, 2011). 즉, 통합교육을 통하여 비장애 유아와 장애 유아는 관찰학습, 동기유발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다양한 경험을 교류하며(이지효, 이병인, 2011) 상호작용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다(정은영, 2001).

통합교육 상황에서의 유아의 문제 행동으로는 자리이탈, 물건 던지기, 꼬집기, 짜증 부리기 및 수업방해, 교사의 지시에 대한 불순응과 또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배척 행동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 행동들은 자신뿐 아니라 또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영아, 김대영 2010; 박은수, 2011; 임다경, 이병인, 2019).

장애로 진단받은 유아뿐 아니라 의학적 진단을 받지 않는 않았으나 부모나 담임교사가 불 장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장애의 위험이 높은(at-risk) 유아들도 이러한 문제 행동을 발생시키며(김정민, 2019) 발달성취 및 사회적 기술습득과 또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교사들 또한 문제 행동 지도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배선화, 2015; 송나리 2011). 따라서 문제 행동을 지닌 유아가 교육환경에서 배제되지 않고 유치원의 활동이나 일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동에 대한 개별 지원과 조기 중재가 필요하다(성미제, 20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교육부, 2021) 제 14조에서는 장애 및 장애위험 유아의 장애 조기발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결정적 시기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4년 미국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2004)에서는 문제 행동에 대한 중재 계획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을 명시하였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문제 행동의 기능을 이해하고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종합적인 중재를 계획하고 문제 행동을 대체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술을 가르치는 접근방법이다(Bambara & Kern, 2008).

국내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가 실행되어 왔다(권소영 외, 2018; 마은희 2021; 박상인, 심숙영, 2021; 박은수, 김은경, 2014; 임희정 외, 2020; 정희진, 양명희, 2014; 최현정 외, 2020; 허수연, 이소현, 2019).

이에 따라 최근에는 장애 및 장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문헌분석 연구 또한 시행되어왔다. 지금까지 국내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탐색에 관한 문헌연구들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문헌을 중심으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행 수준을 조사한 연구(정길순, 노진아, 2011)와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의 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구체적인 중재 요소와 세부 전략을 분석한 연구(최미점, 2014)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긍정적 행동지원의 1, 2, 3단계의 다양한 중재 연구들에 대한 문헌 분석으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필요한 유아의 장애유형과 문제 행동 및 중재 전략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성미제(2015)는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의 장애 유아의 문제 행동에 따른 중재방법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중재 효과를 수치화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의 학술지를 포함하여 유아교육 환경 안에서 다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험연구 동향 및 중재 요소들을 분석하고자 한 이수정(2008)의 연구는 분석 대상이 되는 국내 문헌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국내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는 것이 어려웠다.

연구 실험 대상의 장애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문제 행동 분석(김건희, 장수정, 2014), 통합교육 환경에서 교수전략 방법 및 특성에 대한 분석(조인영, 이연우, 2019) 및 자폐성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문헌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박지윤, 이병인, 2018). 이러한 문헌 분석에 있어서 실험 대상은 특수교육대상유아 및 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성향 유아와 고립의심유아와 같은 장애위험군에 속한 유아의 행동 중재 관련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 영유아와 장애위험 유아 및 장애 영유아를 실험 대상에 포함하는 논문들에 대한 분석한 연구(김진호, 차재경, 2015)에 있어서도 학령기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연령의 대상을 포함하는 연구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장애 및 장애위험 유아에 대한 중재 전략의 효과에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듯 다양한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문헌 연구들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성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장애 유아 및 장애위험 유아에 대한 강도 높은 지원 전략인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시행한 단일대상 실험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 및 장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논문이 처음 학술지에 게재된 2002년부터 2019년 사이의 국내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유치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장애 유아 및 장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단일 대상 실험 논문을 중심으로 논문을 분석하여 주요 중재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특수교육 현장에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전략을 적용한 연구들의 변인별 특성 및 중재 대상에 따른 중재 전략을 분석해보므로써 어떠한 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가정 및 그 밖의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장애 및 장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실험한 국내 문헌의 분석으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및 장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 있어서 주요 변인과 변인별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 및 장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에 있어서 대상 유아의 특성에 따른 중재의 효과성과 함축성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논문 선정 및 자료 수집

1) 논문 선정 기준

본 연구에 필요한 논문은 검색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첫째,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 출간된 국내 학술 논문으로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인 경우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을 연구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개별차원 긍정적 행동지원과 관련된 실험연구를 분석 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분석논문의 유아 연령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교육부, 2021)의 특수교육대상자에서 만3~5세 사이의 유아로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유치원, 유아특수학교, 사설치료기관 등 유아교육과정 및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장애위험 유아 및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부, 2021)을 근거로 하여 장애진단을 받은 유아로 하였다. 장애위험 유아는 의학적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교사나 부모의 비공식적 진단을 통해 긍정적 행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성향 유아와 고립의심유아, 장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논문을 선정하였다.

2)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첫째,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학술지 수집하기 위해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 교보문고 스킨라,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통하여 검색하였다. 1차 검색으로는 '긍정적 행동지원', '개별차원 긍정적 행동지원', 'PBS', '행동중재', '문제 행동 중재'

등을 주제로 1차 검색을 하고 2차 검색으로 ‘장애 유아’, ‘장애위험 유아’, ‘유아’, ‘장애’ 등을 입력하여 본 연구에 적절한 논문들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 가운데 석사 및 박사 논문은 제외하였으며, 학술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선정 과정을 통하여 국내 17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위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장애 및 장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관련 연도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2002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2002년과 2005년 2006년에 각각 1편, 2008년에는 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2003년에서 2004년 2007년과 2009년에는 한 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매년 한 편에서 두 편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1> 연도별 논문 편수

분석영역	'02	'05	'06	'08	'10	'11	'12	'13	'14	'16	'17	'18	'19	계
학술지	1	1	1	2	1	1	2	1	1	1	1	2	2	17

2. 자료 분석과 처리

자료 선정과 분석을 위해 연구자와 특수교육을 전공한 특수교사 1인이 참여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는 전문가 접근방법(Committee approach; Burns, 1996; 이옥인, 백은희, 2007에서 재인용)을 사용하여 두 명의 전문가가 심층적인 토의 및 의사교환을 하는 것이다. 즉, 자료 선정 및 수집의 적합성 논의, 연구대상, 연구유형, 중재방법 기준 선정 등의 논의를 통해 분석내용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자료처리는 장애 및 장애위험 유아의 문제 행동과 적응 행동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대상의 연령 및 중재 환경 장소를 분석하였고 문제 행동과 적응 행동의 유형을 중재 효과와 함께 분석하였으며 중재 대상의 특성에 따른 중재 전략의 특성과 효과를 알아보고자 배경 및 선행사건 전략, 대체행동 교수전략, 후속결과 전략을 검토하고 중재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 효과를 파악하고자 단일대상연구의 중재 효과를 분석하는 메타분석 방법 중 하나인 비중복 비율 기법(Percentage of Nonoverlapping Data: PND)을 활용하여 효과 크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중복 비율 기법(PND)은 계산이 용이하고 메타분석에서 효과 크기를 산출하여 중재 효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빈번하게 사용된다(Scruggs & Mastropieri, 2001). 비중복 비율(PND)이 90%를 초과한다면 중재가 대상에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70~90%로 나타나면 중간 범위의 효과가 있고 50~70%로 나타나면 낮은 범위의 효과를 나타내며 50% 미만이면 중재가 대상에게 거의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Scruggs, Mastropieri, Cook, & Escobar, 1987).

III. 연구 결과

1. 개별화된 긍정적 행동지원 변인별 특성

1) 연구 대상자별 특성

장애 및 장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들을 중재 대상 유아의 특성, 연령과 중재 환경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중재 대상 중 장애유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교육부, 2021) 및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부, 2021)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장애위험 유아는 의학적으로 진단 받지 않았으나 교사나 부모의 비공식적 진단을 통해 긍정적 행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성향 유아와 고립의심유아, 장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논문을 선정하였다.

실험연구 17편 중 중재 대상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폐성 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35.3%)가 가장 많았으며 발달지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29.4%)와 장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23.5%)였다.

장애 및 장애위험 유아의 연령은 학령기 이전 만 3세에서 만 5세를 기준으로 하여 단일 연령으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혼합연령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 5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52.9%) 다음으로 만 4세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혼합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및 장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중재가 실시된 중재 환경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설 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과 특수학교 유치원, 유아특수학교 및 어린이집(통합 및 장애전담 포함)과 유치원과 기타장소(가정 및 지역사회 포함)였다. 즉, 중재 환경은 유치원(35.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어린이집 순으로 중재가 실시되었다.

<표 2> 연구 대상의 특성 N=17

대상	자폐성 장애	발달지체	장애위험 유아	중복장애	청각장애
편수(%)	6(35.3)	5(29.4)	4(23.5)	1(5.9)	1(5.9)

<표 3> 연구 대상의 연령 N=17

연령	만 3세	만 4세	만 5세	혼합
편수(%)	1(5.9)	4(23.5)	9(52.9)	3(17.7)

〈표 4〉 연구 환경 N=17

환경 편수(%)	유치원 ¹	어린이집 ²	특수학교	유아특수학교	복지관	유치원+ 기타 장소
	6(35.3)	4(23.5)	2(11.8)	2(11.8)	1(5.9)	2(11.8)

¹유치원: 통합유치원

²어린이집: 장애전담 어린이집, 통합 어린이집

2) 중재 대상의 행동 유형

중재 대상에 따른 행동 유형을 문제 행동과 적응 행동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문제 행동을 중재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100%) 적응 행동은 모든 중재 대상에게 참여 행동 및 상호작용 행동을 중심으로 중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폐성 장애 유아의 경우 공격 행동 및 자리이탈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에 대한 연구가 가

〈표 5〉 중재 대상의 문제 행동 및 적응 행동

중재 대상	문제 행동	적응 행동
자폐성 장애	1) 공격 행동 2) 자리이탈 행동(입실 및 착석거부) 3) 위협 행동 4) 방해 행동 5) 산만한 행동 6) 자해 행동 7) 자기자극 추구행동	1) 참여 행동 2) 상호작용 행동
발달지체	1) 자리이탈 행동(입실 및 착석거부) 2) 회피 행동(혼자놀이, 소극적 행동) 3) 공격 행동(물건 던지기, 타인 공격) 4) 방해 행동 5) 파괴 행동 6) 부적절한 자세 및 소음유발	1) 참여 행동 (과제, 활동 및 일과 참여행동)
장애위험 유아	1) 지시거부 행동 2) 과제회피 행동 3) 주의산만 행동 4) 방해 행동 5) 단독놀이 행동	1) 자기 주도적 행동 2) 활동참여 행동
중복장애	1) 자해 행동	1) 바람직한 상호작용 행동
청각장애	1) 과제이탈 행동	

장 많았으며 참여 및 상호작용 행동과 같은 적응 행동이 교수되었다.

발달지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문제 행동은 자폐성 장애 유아와 유사하여 자리이탈 행동, 회피 행동, 공격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중재의 대상이었으며 적응 행동으로 참여 행동이(100%) 교수되었다.

장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문제 행동은 지시거부 행동과 과제회피 행동, 주의산만 행동, 방해 행동 및 단독놀이 행동이었고 적응 행동의 경우 자기 주도적 행동과 활동참여 행동으로 나타났다.

중복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자해 행동과 상호작용 행동이 주로 다루어졌으며, 청각 장애 유아의 경우 과제이탈 행동이 주된 중재의 대상이 되었다.

요약하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다양한 환경에서 공격 행동, 자리이탈, 회피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이 나타났으며 적응 행동은 참여 행동과 상호작용 행동이 대체행동으로 교수되었다. 중재 대상의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 행동 및 적응 행동 유형은 <표 5>와 같다.

2. 중재 대상에 따른 중재 전략 효과 및 함축성

중재 대상에 따라 어떠한 배경 및 선행사건 전략, 대체행동 교수전략, 후속결과 전략을 사용하였는지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중재 전략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자폐성 장애 유아의 경우 배경 및 선행사건 중재 전략은 자리 및 교구 재배치, 환경 재구성, 활동 전이 신호를 포함한 물리적 환경 수정이(100%)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선호도 활용 및 활동 난이도 조절, 자료 수정과 시각적 구조화를 포함한 교수적 수정(66.7%)이 나타났다. 또한 시간표 변경을 통한 시간적 환경 수정(50%), 순서 배려하기, 교사의 관심 제공, 역할 부여하기를 포함한 사회적 환경 수정(50%)으로 나타났다. 대체행동 교수전략은 언어, 신체 및 사진카드를 요구하기, 손들어 요구하기, 대체 의사소통 표현하기와 관련된 연구(83.3%)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기술, 호칭 부르기 및 교구 사용 방법 익히기 중재 등을 실시하였다. 후속결과 중재 전략은 모든 논문에서 강화제를 사용하였으며 강화제의 종류는 사회적 강화(66.7%)가 가장 많았고 토큰강화를 실시한 연구(50%), 활동 강화를 실시한 연구(33.3%) 순이었다. 즉, 배경 및 선행사건 중재 전략은 자리 재배치 및 시각적 구조화를 중재 전략으로 빈번하게 사용하였으며 대체행동 교수전략으로 대체 의사소통 표현하기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강화 또는 물질적 강화를 후속결과 중재 전략으로 사용하였다. 문제 행동의 비중복 비율(PND)은 86~100%로 높은 효과 크기 범위를 보였으며 적응 행동의 비중복 비율(PND)은 100%의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발달지체 유아의 경우 배경 및 선행사건 중재 전략은 자리 및 환경, 교구 재배치를 포함한 물리적 환경 수정이 가장 많았고 구체적으로 선호도 활용 및 활동 난이도 조절, 자료 수정과 시각적 구조화를 포함한 교수적 수정(80%)과 교사 및 또래를 활용한 중재 전략(40%)으로 나타

〈표 6〉 중재 대상에 따른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전략

중재 대상	중재 전략		
	배경·선행사건 전략	대체행동 교수전략	후속결과 전략
자폐성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 재배치 · 시각적 구조화 · 활동의 난이도 및 자료 수정 · 선호물을 활용한 과제 및 교구 제공 · 선호물을 활용한 선택 기회 제공 · 순서 배려하기 · 활동 전이 신호 · 시간표 변경 · 물리적 환경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 의사소통 표현하기 · 도움 요청하기 · 요구하기 (사진, 신체, 언어 활용) · 행동도표 · 사회적 기술 · 호칭 부르기 · 분노조절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강화 · 물질적 강화 · 신체적 강화 · 토큰 강화 · 무시하기 · 강화제 선택 보상 · 선호대상과 상호작용 기회
발달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 배치 · 교사의 관심 제공 · 선호도 높은 교재 및 교구 제공 · 사회적 환경 수정 · 자료 및 교구 재배치 · 또래 교수 실시 · 활동 선택 기회 제공 · 대체 행동 설명 · 순서 배려하기 · 활동 전이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 의사소통 표현하기 · 손들고 말하기 · 친구 이름 부르기 · '주세요'라고 말하기 · 순서 기다리기 · 도움 요청하기 · '네', '아니오'로 대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강화 · 사회적 강화 · 토큰 강화 · 무시하기 · 또래 촉진 · 언어적 강화 · 강화 장면 보기 · 강화물 선택 보상
장애위험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 배치 · 도우미 활동 · 시각적 일과표 · 과제 난이도 및 길이 조절 · 활동 난이도 및 참여 기회 제공 · 활동 수행 예시 제공 · 활동 전이 안내 · 대체 행동 상기 · 교사의 관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 요청하기 · 자기표현 기회 제공 · 사회적 상호작용 · 인내하기 · 적응 기술 교수 · 사회적 기술 교수 · 전환 상황 연습 · 자기 점검 및 자기 평가 · 바람직한 의사표현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강화 · 자기기록 · 토큰 강화 · 활동 강화 · 언어 및 행동 단서 제공 · 무시하기
중복 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 및 자폐범주성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의사소통관 제작 및 사물 명칭 교수 · 요구상황 사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의사소통 기술 훈련 · 사진카드로 요구하기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강화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 배치 · 시각적 일과표 · 과제 난이도 및 양 조절 · 활동 선택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 요청하기 · 신체 및 언어적 촉진을 통한 도움요청하기, 도움거부하기 제스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 및 사회적 강화 제공 · 피드백 제공

났다. 대체행동 교수전략은 대체 의사표현하기, 손들어 요구하기, 손들고 '선생님' 부르기, 중재 카드 활용하기의 전략(80%)이 연구에서 나타났고 친구 이름 부르기 및 또래와 놀이하기, 신체 접촉의 전략(40%)이 나타났다. 또한, 후속결과 중재 전략의 경우 자폐성 장애와 동일하게 모든 연구에서 강화제 사용 전략(100%)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강화의 사용은 사회적 강화(80%), 토큰 강화(60%), 활동 강화 및 물질 강화(5.9%)가 나타났다. 즉, 배경 및 선행사건 중재 전략은 예방차원의 물리적 자리 배치, 교사의 관심, 선호도를 고려한 교재 및 교구 제공의 중재를 사용하였으며 후속결과 중재 전략으로는 신체 및 사회적 강화를 활용하여 문제 행동 및 적응 행동에 대한 중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중재 전략에 따른 문제 행동의 비중복 비율(PND)은 70~100%로 중간효과에서 높은 효과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적응 행동의 비중복 비율(PND)은 85~96%의 높은 효과의 범위를 보였다.

장애위험 유아의 경우 배경 및 선행사건 중재 전략으로 자리배치를 포함한 물리적 환경 수정 전략(100%)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선호도를 활용한 활동 제시 및 교구 제공과 과제 난이도 조절을 통한 교수적 수정(75%)을 실시하였으며 도우미 활용 및 또래 교수 전략과 교사의 관심(50%)을 제공하였다. 대체행동 교수전략으로 사회적 기술 교수, 적응기술 교수 및 갈등상황 해결하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자기표현 기회제공 및 바람직한 의사표현하기(75%), 인내하기, 자기점검 및 평가기술(50%)이 나타났다. 후속결과 중재 전략으로 강화제 사용 중 사회적 강화와 토큰강화를 사용하였다. 즉, 배경사건 중재 전략으로는 자리 배치, 도우미 활용 및 시각적 일과표를 사용하였으며 대체행동 교수전략으로는 도움 요청하기와 자기표현 기회를 제공하였고 후속결과 중재 전략으로는 사회적 강화와 자기점검전략이 중재전략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중재 전략의 문제 행동 비중복 비율(PND)은 98~100%의 높은 효과 크기의 범위를 보였으며 적응 행동의 비중복 비율(PND)은 85~96%의 효과 크기의 범위를 나타냈다.

청각장애 유아의 경우 자리 배치 및 시각적 일과표를 배경 및 선행사건 중재 전략으로 활용하였으며 대체행동 교수 중재 전략으로 도움 요청하기를 물질 및 사회적 강화를 후속결과 중재 전략으로 사용하였으며 중재의 비중복 비율(PND)은 100%로 높은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뇌성마비,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를 지니고 있는 중복장애 유아의 경우 대체 의사소통 및 사회적 강화를 활용한 다요소 중재를 실시하였으며 문제 행동 및 적응 행동 중재 전략의 비중복 비율(PND)은 100%의 높은 효과 크기를 보였다.

실시된 중재 전략을 요약하면 배경 및 선행사건 중재 전략에서 모든 유아에게 문제 행동 예방과 관련한 물리적 환경 수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대체행동 교수전략에서 자폐성 장애 및 발달지체 유아의 경우 의사소통 체계 교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장애위험 유아의 경우 사회적 기술 교수 및 적응기술 교수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후속결과 중재 전략은 모든 연구에서 강화제를 활용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강화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중재 효과의 경우 장애위험 유아의 문제 행동 비중복 비율(PND)이 98~100%의 가장 높은 효

〈표 7〉 논문별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전략

저자 (연도)	연구대상 (N)	증재환경	중재 행동		중재 전략		중재 효과(PND)
			1) 문제 행동	2) 적응 행동	배경 및 선행사건 전략	대체 행동 교수 전략	
조광순 김정자 (2002)	만 5세 증복장애 (N=1)	특수학교 유치부	1) 자해 행동 2) 바람직한 상호작용	대체의사소통판 제작 및 사물 명칭 교수 요구상황 사물 선정	사회적 강화	자해 행동 감소(100%) 상호작용행동 증가(100%)	
이인숙 조광순 (2005)	만 5세 자폐성 장애 (N=1)	일반 유치원 통합학급 가정 지역사회 (놀이터)	1) 위험 행동, 공격 행동 2) 참여 행동, 상호작용	활동의 난이도 및 자료 수정 시각적 구조화 순서 배려하기 자리 제배치	사회적 강화 교정 피드백 제공 대체 기술 촉진	위험 행동, 공격 행동 (100%) 바람직한 행동 증가 (100%)	
하연희 곽승철 강영애 (2006)	만 5세 발달지체 (N=1)	복지관 방과 후 프로그램	1) 자리이탈, 소음유발, 부적절한 자세 2) 과제참여 행동	신호도 높은 교재 및 교구 제공 자리배치 교사의 관심 제공	사회적 강화	자리이탈, 소음유발, 부적절한 자세 감소(100%) 과제참여 행동 증가(100%)	
송유하 박지연 (2008)	만 4-5세 자폐성 장애 (N=3)	어린이집 통합학급	1) 자리이탈, 산만한 행 동, 부적절한 자세 2) 활동참여 행동	자리배치 교실 환경 재구성 역할부여하기	행동도표 역할놀이 강화제 선택 보상	자리이탈, 산만한 행동, 부적절한 자세 감소(86%) 활동참여 행동 증가(100%)	
이인숙 조광순 (2008)	만 4-5세 자폐성 장애 (N=3)	가정, 유치원 통합학급	1) 위험, 짐작, 자해, 공격, 방해 행동 2) 참여 행동	시각적 일과표 자리 배치 신호과제 선택기회 제공 활동 전이 신호 자료 및 교구 재배치 순서 배려하기	토론 강화 사회적 강화 무시하기 신호대상과 상호작용 기회	위험, 짐작, 자해, 공격, 방해 행동(100%) 바람직한 행동 증가 (100%)	
김영아 정대영 (2010)	만 3-4세 자폐성 장애 (N=2)	유이특수 학교 학급	1) 자리이탈, 부적절한 언어 행동 및 착석태도 2) 사회적 상호작용 (관심기지기, 요구하기 행동)	자리 배치 시간표 변경 물리적 환경 재구성 (주세요, 말하며 손 모양)	활동 난이도 조절 도움요구하기 (도와주세요, 선생님) 요구 표현하기 (주세요, 말하며 손 모양)	부적절한 언어 행동, 자리이탈, 착석태도 감소(100) 사회적 상호작용 증가 (100)	

〈표 7〉 논문별 개별치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전략 (계속 1)

저자 (연도)	연구대상 (N)	중재환경	1) 문제 행동		중재 전략		중재 효과(PND)
			증세 행동	적응 행동	배경 및 선행사건 전략	대체행동 교수 전략	
이혜숙 심보배 (2011)	만 4세 발달지체 (N=1)	유치원 통합학급	1) 물건 던지기, 친구 밀기, 자리이탈	자리 배치 자료 및 환경 재배치 난이도 조절 및 감각 자료 사용 사회적 환경 수정	신체접촉 순 내미는 혼린 손드는 혼린	활동 및 사회적 강화 신체적 접촉을 통한 강화	물건 던지기, 친구 밀기, 자리이탈 감소(92%)
이효신 김은영 (2012)	만 4세 발달지체 (N=2)	장애진단 어린이집	1) 파괴 행동, 방해 행 동	자리 배치 활동 전이 안내 신호과제 선택 순서배타하기 포레 및 교사지원 제공	순서 기다리기 네, 아니오 대답하기 도움 요청하기 그림카드를 이용한 의사소통	토론 강화 물질 및 사회적 강화 무시하기 포레 촉진	파괴행동, 방해행동 감소(100%)
최미점 백은희 (2012)	만 3세 발달지체 (N=1)	어린이집 통합학급	1) 자리이탈 행동 2) 활동참여 행동	신호활동 선택 자료 및 교구 재배치 신호포레 자리 배치	손을 들고 선생님 부르기 주세요, 라고 말하기 친구이름 부르기	인어적 칭찬 강화 장면 보기 토론 강화	자리이탈 행동 감소(70%) 활동참여 행동 증가(96%)
장대영 김영아 (2013)	만 5세 자폐성 장애 (N=3)	유아특수 학교 학급	1) 방해 및 자기자극 행 동, 공격 행동 2)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주도 및 반응 행동)	활동 및 선택 기회 제공 자료 및 환경 재배치	도움 요청하기 교구 사용방법 익히기 기능적 의사표현 교사와 놀이참여	토론 강화 신체 및 사회적 강화	방해 및 자기자극 행동, 공격 행동 감소(100%) 사회적 상호작용 증가(100%)
박은수 김은경 (2014)	만 5세 고립 의식유아 (N=1)	유치원 일반학급	1) 과제 회피 행동, 단 독 놀이 행동 2) 자기주도 행동 (사회적 의사소통, 자기 실천적 행동)	자리 배치 도우미 활용 활동 참여 기회 제공 활동 난이도 수정 활동 수행 예시 제공	자발적 놀이 계획 세우기 사회적 상호작용 자기표현 기회 제공	자기집김 및 자기 평가 토론 강화 사회적 강화	과제 회피행동, 단독 놀이 행동 감소(100%) 자기주도 행동 증가(100%)
김미혜 노진아 (2016)	만 5세 ADHD 성향 유아 (N=1)	병설유치원 통합학급	1) 소음내기, 산만행동, 지시거부 2) 활동참여 행동 (주의집중, 활동 및 과 제 수행, 지시 따르기)	과제 난이도 및 길이 조절 신호도 활용한 활동 제시 자리 배치 시각적 일과표	도움 요청하기 인내하기 적용 기술 교수	토론 강화 인어 및 비언어적 강화 칭찬 스티커	소음내기, 산만 행동, 지시거부 감소(100%) 활동참여 행동 증가(100%)

〈표 7〉 논문별 개별치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전략 (계속 2)

저자 (연도)	연구대상 (N)	중재환경	중재 행동		중재 전략		중재 효과(PND)
			1) 문제 행동	2) 작용 행동	배경 및 시행사건 전략	대체행동 교수 전략	
박다혜 (2017)	만 5세 ADHD 성향 유아 (N=1)	병실유치원 일반학급	1) 지지거부하기	교사의 관심 또래 교수 활동 전이 안내 등원 시간 지키기	사회적 기술 교수 전환 상황 연습 바람직한 의사표현 하기	사회적 강화 자기기록 토큰 강화	지지거부하기 감소 (98%)
우정화 이명인 (2018)	만 5세 장애위험 유아 (N=1)	병실유치원 일반학급	1) 주의산만, 방해 행동	자리 배치 선호하는 활동 및 교구 제공 단순한 지시 대체행동 상기 활동 전이 안내	자기집중 및 자기 평가 사회적 기술 교수 역할놀이를 통한 갈등 상황 해결	사회 및 활동 강화 토큰 강화 언어 및 행동적 단서 제공 무시하기 감정 코칭 기법 사용	주의산만, 방해 행동 감소(100%)
이서옥 송주영 김운이 김보배 백은희 (2018)	만 4세 청각장애 (N=1)	특수학교 유치원 학급	1) 과제이탈 행동	자리 배치 시각적 일과표 과제 난이도 및 양 조절 활동 선택 기회 제공	도움 요청하기 신체 및 언어적 촉진을 통한 도움 요청하기, 도움 거부하기 제스처 사용	물결 및 사회적 강화 제공 피드백 제공	과제이탈 행동 감소(100%)
권소영 이지효 강수연 (2019)	만 4세 발달지체 (N=1)	어린이집 통합학급	1) 회피, 혼자놀이, 소극적 행동 2) 일과 참여 행동	또래 교수 실시 자리 배치 활동 선택 기회 제공 대체행동 설명	중재카드 활용 대체 의사표현 또래와 놀이하기	토큰 강화 강화물 선택 보상	회피, 혼자놀이, 소극적 행동 감소(95%) 활동참여 행동(85%)
김은진 이금자 이숙정 (2019)	만 5세 자폐성 장애 (N=1)	유치원 통합학급	1) 입실 및 착석 거부, 과제 시 주의 산만	신호물 통한 과제 제공 신호물 활용한 물리적 환경 수정 선호하는 교구나 자료 제공	의사소통 교수 (문짓 표현)	선호하는 물건 및 사건을 이용한 활동 강화 (10분간 제공)	입실 및 착석 거부, 과제 시 주의 산만 행동 감소(90%)

과 크기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자폐성 장애 및 장애위험 유아와 중복장애 유아의 적응 행동 비 중복 비율(PND)은 100%로 높은 효과 크기를 보여 중재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별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전략으로 <표 7>과 같이 17편 모두 기능평가를 기초로 한 다요소 중재전략인 배경 및 선행사건 전략, 대체행동 교수전략, 후속결과 전략을 사용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 및 장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단일 대상 실험연구 중 2002년부터 2019년 사이의 국내 논문 총 17편에 대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변인별 특성과 중재 대상에 따른 중재 전략의 효과 및 함축성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변인연구 논문의 실험대상별 특성 중 중재 대상 중 자폐성 장애와 발달지체가 총 17편 중 6편으로 자폐성 장애와 발달지체를 지닌 유아의 문제 행동이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분석 논문의 유아 연령은 만 5세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이 만 4세와 혼합연령이었다. 만 5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이유로는 선행연구(백진희, 2012)와 같이 해당 연령이 초등 학교 취학 직전 연령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가 유아의 문제 행동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중재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인숙, 조광순(2008)에 따르면 가정과 학교 두 장소에서 실시한 긍정적 행동지원은 두 장소 모두에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중재환경은 유치원이 가장 많았고(17편중 15편), 한 기관에서 중재가 실행된 논문이 대부분이어서 다양한 장소로 중재 일반화 여부를 분석하기 어려웠다.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은 일상적인 일과 중에 시행하였을 때 문제행동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임나리 외, 2019). 따라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장소로의 중재 일반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재 대상에 따른 행동 유형을 문제 행동과 적응 행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상 문헌에서 자폐성 장애 유아의 문제 행동은 주로 공격, 자리이탈 및 위험 행동이었으며, 발달지체 유아의 문제 행동은 공격, 자리이탈 행동, 회피 행동으로 나타났다. 자폐성 장애 및 발달지체 유아의 문제 행동 및 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자폐성 장애와 발달지체 유아의 출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예상된다. 장애위험 유아의 경우 지시거부, 과제회피 및 주의산만 행동, 중복장애 유아의 연구에서는 자해 행동, 청각장애 유아의 경우 과제이탈 행

등을 중재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문제 행동은 통합교육 환경에서 놀이를 통한 활동 참여 기회를 감소시키며 또래 및 교사에게 낮은 기대의 원인이 되어 통합교육 및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도 저해를 가져온다(허수연, 이소현, 2019). 장애 및 장애위험 유아의 적응 행동은 공통적으로 참여 행동과 상호작용 행동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아의 적응 행동을 위해서 또래와 바람직한 상호작용 및 기관의 일과에서 적응, 구조화된 통합 환경의 조성, 상호작용 기회 제공 등이 제안된다.

둘째, 중재 대상에 따른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전략은 선행 및 배경사건 전략, 대체행동 교수 전략, 후속결과 전략으로 나뉘어지며 이러한 중재 전략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재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경 및 선행사건 전략으로는 중복장애 유아를 제외한 모든 중재 대상 유아에게 문제 행동 예방을 위한 물리적 수정인 자리배치, 시각적 구조화 및 활동 난이도 수정의 중재를 실시하였다. 이는 발달장애 유아에게 시각적 구조화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김미화, 2019; 김상희, 2019; 문희원, 박지연, 2008).

대체행동 교수전략으로는 모든 중재 대상 유아에게 대체 의사소통을 활용한 중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문제행동의 원인이 주로 의사소통의 결함으로 인해서라는 선행 연구에 따라(백은희, 2020) 대체 의사소통 중재를 통해 유아가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또래 및 교사와 긍정적 관계 형성을 시도하는 실험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조서영, 김정연, 2014).

후속결과 전략으로는 사회적 강화 및 물질적 강화 등 강화제를 활용한 중재 전략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선행 문헌 연구(김은주, 2012; 심경복, 2017; 이선경, 2009; 임다경, 이병인, 2019)에서도 사회적 강화, 활동 강화, 토크 강화, 물질적 강화를 포함한 강화제를 많이 사용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행동지원의 다요소 중재는 문제 행동의 감소 및 적응 행동 증가가 필요한 유아에게 적용했을 때 효과적인 중재 방법이며 중재 효과의 일반화와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Durand & Merges, 2001).

본 연구는 장애 및 장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의 중재 전략 효과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중복 비율 기법(PND)을 활용하였으며(김정민, 2019; 남경옥, 신현기, 2008; 최미점, 2014; 최진혁, 한운선, 2015)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의 모든 논문에서 효과 크기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재 대상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자폐성 장애 유아의 문제 행동 비중복 비율(PND)은 86~100%로 높은 효과 크기 범위를 나타냈다. 비중복 비율 기법(PND)은 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재 효과의 동향 및 중요성을 제시 할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Tau-U 기법을 활용하여 논문 목적에 적절한 효과크기 지표를 선정하거나 중재 회기 수나 연구 설계에 대한 분석 및 비중복 비율 기법(PND)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중재 효과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인 중복구간 쌍별 비교비

율(NAP)을 산출하는 문헌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김정민, 2019; 박은수, 김은경, 2014; Scruggs & Mastropieri, 1998).

본 연구에서는 개별차원 긍정적 행동지원의 중재전략을 배경 및 선행사건 전략, 대체행동 교수전략과 후속결과 전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국내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장기적 지원 및 위기관리계획에 관한 부분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국외의 논문들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고 중재 기간과 위기 관리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 및 장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논문에서 분석된 최근의 국내 연구들의 실험 장소는 대부분 유치원이나 관련 교육 기관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중재 일반화를 위하여 실험 장소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환경과 가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재 참여자에 있어서도 가족이 유아의 문제 행동 및 적응 행동 중재에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중재자가 누구인가와 관련한 중재자 변인 중심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 및 장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한 2002년부터 2019년까지의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학술지 중심으로 논문에서 나타난 주요 변인과 변인별 특성 및 대상 유아의 특성에 따른 중재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과 국외의 실험 연구 편수와 비교할 때 학령기 이전 장애 및 장애위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가 국내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현저히 낮았다. 즉, 장애 유아 및 장애위험 유아들을 위한 개별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가 보다 더 필요하며 본 문헌 분석 연구의 과정에서 나타난 3차 중재 단계에서 효과적인 중재전략이 장애 유형별로 실험연구에 적용 시도될 수 있다. 본 문헌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앞으로의 긍정적 행동지원 실험 연구는 중재 전략의 효과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과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최근 시행되고 있는 랩어라운드(wrap-around) 긍정적 행동지원(이지숙, 2016)과 같이 지역사회 및 가정과 유기적인 협력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한 연구가 제안된다.

참고문헌

*는 논문분석에 사용된 연구임.

교육부 (2019).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20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권소영, 이지효, 강수연 (2018).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통합된 장애위험 유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8(3), 85-108.

- *권소영, 이지효, 강수연 (2019). 긍정적 행동지원이 발달지체 유아의 어린이집 일과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9(4), 165-191.
- 김건희, 장수정 (2014).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문제 행동 관련 연구동향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30(4), 71-91.
- 김미화 (2019). 선호도를 활용한 시각적 지원이 통합된 자폐 범주성 장애 유아의 참여행동과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김미혜, 노진아 (2016).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ADHD 성향 유아의 문제 행동과 활동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통합교육연구, 11(1), 43-65.
- 김상희 (2019). 학급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통합학급 일반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경기.
- *김영아, 정대영 (2010). 긍정적 행동지원이 자폐성장애 유아의 수업방해행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2(3), 299-323.
- *김영아, 정대영 (2013). 부모-교사 협력을 통한 긍정적 행동 지원이 자폐성 장애 유아의 문제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15(1), 355-374.
- *김은선, 이금자, 이숙정 (2019).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PBS)이 중도 자폐성장애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논총, 35(2), 249-273.
- 김은주 (2012). 긍정적 행동지원이 프래드윌리 증후군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경남.
- 김정민 (2019). 장애위험 유아 대상 행동중재의 효과성 연구: 단일대상연구를 중심으로. 어린이미디어연구, 18(1), 47-68.
- 김진호, 차재경 (2015). 장애 위험아동에 대한 국내연구 고찰. 정서·행동장애연구, 31(3), 127-151.
- 남경욱, 신현기 (2008). 인지적 장애를 지닌 아동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중재에 대한 메타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2(4), 193-212.
- 마은희 (2021). 개별화된 긍정적 행동지원이 아동양육시설 유아의 식사시간 행동과 지시 따르기에 미치는 효과. 유아특수교육연구, 21(1), 173-202.
- 문희원, 박지연 (2008). 가족이 참여한 긍정적 행동지원이 가정에서의 저녁 일과시간에 발생하는 자폐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8(2), 97-115.
- *박다혜 (2017). 어머니-교사와의 협력을 통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ADHD 성향 유아의 유치원에서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논총, 33(1), 111-137.
- 박상인, 심숙영 (2021). 어린이집 통합학급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이 자폐성 장애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행동분석·지원연구, 8(1), 137-160.
- 박은수 (2011). 긍정적 행동지원이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

- 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경기.
- *박은수, 김은경 (2014). 긍정적 행동지원이 고립 의심 유아의 자기주도행동과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13(3), 205-225.
- 박은수, 김은경 (2014). 학급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과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행동분석·지원연구, 1(1), 59-81.
- 박지윤, 이병인 (2018). 자폐성장에 영유아 관련 실험연구 동향분석. 특수교육논총, 34(1), 1-33.
- 배선화 (2015). 통합학급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유아의 문제 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기.
- 백은희 (2020). 지적장애 이해와 교육. 경기: 교육과학사
- 백진희 (2012). 유아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동향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경기.
-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복지법.
- 성미제 (2015). 유아특수교육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의 국내연구동향 -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연구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기.
- 송나리 (2011). 유아문제 행동 지도에 대한 초임교사들의 인식과 어려움.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송유하, 박지연 (2008). 행동도표를 활용한 긍정적 행동지원이 자폐 유아의 문제 행동과 활동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4(2), 1-25.
- 심경복 (2017). 부모와 연계한 긍정적 행동지원이 발달지체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대구.
- *우정화, 이병인 (2018). 긍정적 행동지원이 장애위험 유아의 주의산만 행동과 방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행동분석·지원연구, 5(2), 45-81.
- *이서옥, 송주영, 김운이, 김보배, 백은희 (2018).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특수학교 유치부청각장애 유아의 과제이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 행동분석·지원연구, 5(2), 83-104.
- 이선경 (2009). 긍정적 행동지원이 발달지체유아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충남.
- 이소현 (2011). 유아특수교육. 서울: 학지사.
- 이수정 (2008). 유아교육 환경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 동향 및 지원 요소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8(1), 161-187.
- 이옥인, 백은희 (2008). 일반교육과정 접근을 위한 자기결정 학습전략이 정인지체 아동의 의사표현 및 도움요청행동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4(2), 195-215.
- *이인숙, 조광순 (2005). 가정과 유치원, 지역사회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자폐유아의 바람직한 행동 및 문제 행동에 미치는 효과. 유아특수교육연구, 5(6), 161-190

- *이인숙, 조광순 (2008). 자폐유아를 위한 가정과 학교의 협력을 통한 긍정적 행동지원의 평가. 유아특수교육연구, 8(2), 65-96.
- 이지숙 (2016). 복합적 문제를 나타내는 청소년을 위한 랩어라운드 모델의 국내적용 가능성에 관한 문헌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3), 476-487
- 이지효, 이병인 (2011). 발달지체유아의 통합교육 관련 요인과 유치원 교육과정 실행 구성요소 간의 관계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6(2), 1-28.
- *이혜숙, 심보배 (2011). 신체접촉을 통한 긍정적 행동지원이 발달지체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효과. 아동복지연구, 9(1), 91-110.
- *이효신, 김은영 (2012). 긍정적 행동지원이 장애유아의 문제 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8(4), 63-90.
- 임나리, 박나리, 최윤희 (2019). 긍정적 행동지원이 어린이집 통합학급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3(2), 33-62.
- 임다경, 이병인 (2019). 통합학급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자폐성 장애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행동분석·지원연구, 6(1), 101-130.
- 임희정, 이선희, 백은희 (2020).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자폐성장애 유아의 율화 및 자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행동분석·지원연구, 7(3), 1-20.
- 정길순, 노진아 (2011).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 동향 분석-1997년에서 2010년까지의 국내 특수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3(1), 103-124.
- 정은영 (2001). 통합된 유치원에서의 사회극놀이 활동이 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3세 발달지체유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정희진, 양명희 (2014). 사회적 강화와 축진의 용암에 의한 발달지체 유아의 착석행동 및 지시 따르기의 변화: 개별대상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3(1), 261-276.
- *조광순, 김정자 (2002). 대체 의사소통 교수가 중복장애유아의 자해행동 및 바람직한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연구, 11(1), 123-150.
- 조서영, 김정연 (2014). 사물과 사진을 활용한 스크립트 활동이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원대체의사소통연구, 2(1), 23-47.
- 조인영, 이연우 (2019). 통합교육환경에서 발달지체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재 연구 동향 분석: 2009~2019년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6(4), 93-113.
- 최미점 (2014).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중재 고찰. 유아특수교육연구, 14(4), 81-104.
- *최미점, 백은희 (2012). 긍정적 행동지원이 발달지체 유아의 자리이탈 행동과 활동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2(1), 91-109.

- 최진혁, 한운선 (2015). 장애인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대한 국내연구 동향분석: 단일대상연구를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3), 137-162.
- 최현정, 노진아, 정길순 (2020). 통합유치원에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발달지체유아의 수업 중 산만한 행동과 활동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20(2), 81-105.
- *하연희, 광승철, 강영애 (2006). 기능평가를 통한 긍정적 행동지원이 발달장애아동의 문제 행동과 과제참여 행동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8(4), 75-96.
- 허수연, 이소현 (2019). 학급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통합학급 유아의 사회성 기술과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5(2), 1-30.
- Bambara, L. M. & Kern, L. (2008). 장애 학생을 위한 개별화 행동지원- 긍정적 행동지원의 계획 및 실행(이소현, 박지연, 박현옥, 윤선아 공역). 서울: 학지사. (원출판년도 2005).
- Durand, V. M., & Merges, E. (2001). 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A contemporary behavior analytic intervention for problem behaviors.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16(2), 110-118.
- Scruggs, T. E., & Mastropieri, M. A. (1998). Summarizing single-subject research: issues and applications. *Behavior Modification*, 22(3), 221-242.
- Scruggs, T. E., & Mastropieri, M. A. (2001). How to summarize single-participant research: Ideas and applications. *Exceptionality*, 9, 227-244.
- Sucuggs, Y. E., Mastropieri, M. A., & Casto, G. (1987). The quantitative syntheses of single subject research: Methodology and validation.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8(2), 24-33.

Abstract

Literature Review of Individualized Positive Behavior Support for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and At-Risk

Wi, Sun Young (Mir Kindergarten)
Paik, Eunhee*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literature review and analyze the results of experimental studies on individualized positive behavior support for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and at-risk from 2002 to 2019. 17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Korea have been selected to be reviewed and analyzed. The selected research articl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variables of disability type, age, intervention setting, and category of challenging behavior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The effect size of the intervention in 17 single subject design studies was analyzed by percentage of non-overlapping data point value. To summarize, developmental delays and autism spectrum disorder were the most common type of disabilities that have been studied. Inclusive kindergarten was the most common environmental research setting being investigated. The effect size of the intervention in research turned out to be highly effective level between 90 to 100% in problematic and adaptive behaviors. Therefore, future research direction were suggested for individualized positive behavior support for preschoolers with developmental delay and at-risk.

Keywords : Individualized Positive Behavior Support,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Challenging behavior

게재 신청일 : 2020. 11. 18

수정 제출일 : 2021. 08. 12

게재 확정일 : 2021. 08. 17

*백은희(교신저자) : Dept. of Special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hpaik@kongju.ac.kr)